

2023. 10. 17.(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0월 17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 자료

담당부서 :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

동물보호과장

이미숙

2133-7645

동물보건팀장

배진선

2133-7651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4쪽

관련 누리집
(메뉴)

<https://animal.seoul.go.kr/>

서울시 야생동물 통한 광견병 차단 위해 미끼 예방약 3만7천개 살포

- 서울시, 외곽에 광견병 미끼 예방약 살포(10.16~11.30), '06년 이후 비발생 유지
- 북한산·양재천 등 서울시 외곽 하천·산악 지역에 157km 방역대 형성
- 시, 산행 시 야생동물 피하고 반려견은 목줄 필수 착용, 야생동물 접촉 않도록 당부

- 서울시는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너구리 등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'광견병 미끼 예방약' 3만 7천 개를 시 외곽 지역에 살포하여 157km의 방역대를 형성한다고 밝혔다.
 - 광견병 미끼 예방약은 야생동물을 유인하기 위해 어묵 반죽 안에 예방 백신을 넣은 것으로 동물이 먹게 되면 점막상피를 통해 백신이 흡수되어 면역을 형성시킨다.
 - 2006년부터 매년 봄, 가을에 야생동물용 광견병 미끼 백신을 살포한 이후로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광견병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.
- 살포 위치는 너구리 등 야생동물로부터 광견병이 서울시 안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산, 도봉산, 수락산, 불암산, 관악산,

용마산, 관악산, 우면산과 양재천, 탄천, 안양천, 우이천이며, 광견병에 대한 촘촘한 방역대를 형성하기 위해 서울 경계를 따라 50~100m 간격으로 한 지점당 15~20개씩 총 157km에 살포된다.

- 또한, 미끼 예방약이 살포된 곳에는 현수막과 경고문을 부착해서 시민들이 미끼 예방약을 만지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다. 미끼 예방약을 사람이 만지면 체취가 약에 묻게 되어 야생동물이 먹지 않을 수 있고, 간혹 가려움증 등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.
- 살포하는 미끼 예방약은 반려동물인 개나 고양이가 먹더라도 안전한 것으로 입증되어 있지만, 정확한 광견병 예방 효과를 얻기 위해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용 광견병 예방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좋다.
- 반려동물과 산행을 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시키고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, 반려동물이 광견병 의심 동물과 접촉했을 때에는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.
 - 광견병에 걸린 동물의 증상은 쉽게 흥분하거나 과민해져 공격 성향을 보이며, 거품 침을 흘리고, 심하면 의식불명 후 폐사할 수 있다.
- 사람이 야생동물 또는 광견병 의심 동물에 물렸을 경우에는, 바로 상처 부위를 비눗물로 15분 이상 씻어내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.

-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“야생동물 단계부터 인수공통감염 병인 광견병을 예방하여 시민과 반려동물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광견병 원천 차단에 노력하겠다.”며 “가을철 산행 시 야생동물과 접촉을 피하실 것을 당부드린다.”고 말했다.

[참고자료 1]

□ 미끼예방약살포(예)



[참고자료 2]

□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지역(붉은색 선을 따라 살포)

